

'만경강과 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국립전주박물관 - 완주군, 사진 공모전 개최... 내달 1일부터 접수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오는 6월 18일 완주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북역사문화전 13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전시를 사전에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해 완주군과 공동으로 만경강과 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완주군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9일까지다. 작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제출 가능하고,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kkingdom77@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5월 22일이며, 시상과 부상은 대상(1명, 30만원), 최우수상(2명, 각 20만원), 우수상(3명, 각 10만원), 입선(5명, 특별전 도록 지급)으로 되어 있다. 수상작들은 특별전 전시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되며, 전시 도록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국립전주박물관과 완주군청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린 계획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전시에서 아름다운 만경강의 자연을 소개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특별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완주군민을 포함한 전북지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http://jnm.museum.go.kr/>) 및 완주군청(www.wanju.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호남권 발대식으로 '인생나눔교실' 본격 시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운영하는 나눔과 공감의 가치로 세대 간 소통을 실현하는 '2019 인생나눔교실'이 본격 시작됐다.

재단은 최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인생멘토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재단은 5월부터 멘토링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해 연간 700여 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생나눔교실'은 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으로 지역의 50대 이상 장년들이 인생멘토가 되어 다양한 세대, 계층, 개인과 만나 세대 공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재단은 인생 멘토 4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성인지 및 세대감수성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올해는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와 지

역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세대 공감' 이슈가 지역으로 더욱 확산하도록 초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발굴·운영된다.

2017년부터 본 사업의 주관처로 선정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호남권민의 '사람 중심' 운영으로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총괄 임진자 팀장은 "오늘 발대식과 감수성 교육은 참여자들과 세대 간 소통이라는 사업 가치를 공유하고 나와 다른 세대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전북새일센터, 케비젠 방문 경력단절예방 특강 진행...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운애)는 26일 (주)케비젠을 방문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특강'과 기업의 고충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노무사' 노무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주)케비젠 재직자 45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 강화교육으로 진행됐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 고용유지를 향상에 주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 강화를 위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이라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케비젠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진에 대한 고충상담과 19년 개정노동법 및 노무관리방안 등에 대해 전문노무사와의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

한편 전북새일센터는 찾아가는 기업문화특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6일 (주)케비젠을 방문해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실시했다.

강을 통해 재취업 여성과 채용기업에 지속적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행복노무사'를 신설, 각 기업 현실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총 15회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운애 센터장은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개

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문화개선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기업컨설팅을 통하여 재직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 및 직위 상 호 간 소통교육으로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이야기가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

무주군, 내달 2일 '봄, 음악을 이야기하다' 개최

무주군이 마련한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만남 봄, 음악을 이야기하다'가 5월 2일 저녁 7시 30분부터 무주군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봄을 맞아 가요와 토크가 함께 하는 콘서트 관람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녹색지대'와 '자전거 탄 풍경'이 무대에 오른다.

1994년 데뷔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녹색지대'는 이날 1집 타이틀곡 '사랑을 할 거야'를 비롯해 '준비 없는 이별'과 '그때 늦지 않았어', '내가 지켜줄게' 등 히트곡들을 부를 예정이며 2001년 데뷔해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전거 탄 풍경'은 대표곡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비롯해 '그렇게 너를 사랑해', '보물', '그래서 그랬던 거야' 등을 부르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김정미 팀장은 "오색 꽃이 만발하고 초록이



질어지는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문을 음악과 함께 활짝 열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국립극단 연극작품 '자기 앞의 생' 부안에 상륙

예술회관서내달 10일 열려... 양희경주연

부안예술회관은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심찬 기획공연 연극 '자기 앞의 생'이 5월 10일 오후 7시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연극 '자기 앞의 생'은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의 원작을 바탕으로 국립극단이 옮긴 올해 첫 작품으로 연출가 박혜선과 국립극단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연극 작품으로 양희경, 오정택, 정원조, 김한 등이 출연한다.

연극은 열네 살 어린 소년 모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로부터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가족과 같은 로자 이즈마의 소중한 추억과 사랑에 대해 그려낸 이야기이다.

당대 최고로 손꼽혔던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가 '메일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해 더욱 더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극은 연극 팬들 뿐만 아니라 원작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도 커다란 기대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국립극단의 품격 있는 연극작품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생을 함께 해 온 등장인물들이 각각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보는 내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고 부안예술회관 사무실에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